◈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조선근

새가정부에서 5월 가정세미나

"가정을 깨우자"

5월 5, 12, 19일(주일) 교육관 314호실에서

교회는 5월 5일을 어린이주일로, 12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가정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세미나 등 온통 가정 이야기로 만발하다. 이는 가정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자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가정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또 다른 일인 것 같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가정사의 문제들만 보아도 그렇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이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교회는 1979년, 결혼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학교 새가정부를 개교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새가정부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정끼리의 교제 등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과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자녀 출산에 따른 문제 등을 적절하게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이 행해지고 있다.

새가정부를 거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재 회원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는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를 신설 개교하기도 했다. 이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을 교육하는 교회학교로 8주 동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적 가정관, 혼수 계획, 양가 부모에 대한 자세 등 가정에 대한 예비 지식과 결혼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는 5월을 맞으며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각각 지키며 가정과 부모, 자녀 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지며 또한 각 전도회에서는 5월 중 가족 모임들을 계획하기도 한다.

한편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 이병옥 장로)에서는 가정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금년에 3회째로 모이는 이 세미나는 새가정부 회원뿐만 아니라 교회내의 가정에 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정을 깨우자'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주간 계속되며 매주일 교육관 314호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게 된다.

충현의 부부들은 이번 기회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일별 강의내용과 강사 및 강사 프로필은 위와 같다.

5월 5일 / 가정과 교회

송 길 원 목사
- 부산새중앙교회 협동목사
-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소장

5월 12일 / 가정과 사회

김 임 교수
- 전주완산교회 장로
- 연세대, 전북대, 원광대 의대 외래교수

5월 19일 / 가정과 학교

정 정 숙 교수
- 총신대학교 교수
- 한국상담선교연구원 협동원장

공동의회 소집 공고

일시 : 1996. 5. 5(주일) IV부예배 후
장소 : 본당
의제 : 장로 · 집사 · 권사 선거의 건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96 교사단기수련회 개최

5월 15, 16일 양일간, 본당에서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과 신학적 기초를 습득하여 교회학교 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1996년도 교사단기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월 15일(수)과 16일(목), 양일간에 본당에서 열릴 '96교사단기수련회는 총신대 신대원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정일웅 박사를 강사로 모시게 되었다.

전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수련회는 '성령에 충만하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라는 표어를 내걸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주제성구로, 찬송가 506장(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을 주제찬송으로 정했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학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교회 교육의 방향과 교회 교육의 신학적 기초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련회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시 간	강의 제목	강 사
5월 15일(수)	저녁 7시	예배(수요2부예배 겸)	정일웅 박사
5월 15일(수)	저녁 8시	교회 교육의 방향과 과제	정일웅 박사
5월 16일(목)	저녁 7시	교회 교육의 신학적 기초	정일웅 박사

주부 교양 강좌

고부간의 갈등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차준구 박사를 모시고 그 문제점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강좌를 배풀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5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충현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
주제 : 고부간의 갈등
강사 : 차준구 박사
송탄신경정신과 원장
두란노상담훈련학교 강사
두란노정신건강상담실 위원
두레청소년선교회 자문위원
기독교TV방송 정신건강 상담

장애인 주일 지난 4월 21일은 교회가 장애인주일로 지킨 날이었다. 이번 장애인주일에는 교회학교 사랑부와 에바다부가 주관이 되어 본당 1층 전시실에서 사랑부 · 에바다부 학생들의 작품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작품전에는 성경쓰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이 전시되어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좌측 찬양대석에 사랑부 찬양대가 자리하여 열심히, 정성껏 찬양을 드리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은혜와 은사
(고전 12:4-11)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강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충현>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편집자)

김 덕 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14:6)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장조를 구하라(사 7:10-17)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18:5)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9)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저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신, 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압축한 것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 주의 교회위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있을 곳에 관한 약속입니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 혼자 사는 애기들 —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내가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시며 기도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을 예비하면 거룩한 믿음을 가진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접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또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셔서 간구하시는 첫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 지상에, 땅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소서. 내가 저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 — 4절까지 다같이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다같이 받아 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이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지상 교회에 오시는데 빈 손 들고 오셨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한번 받아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빈 손 들고 오셨네." 그렇습니까? 빈 손 들고 왔어요? 아니지요. 빈 손 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만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빈 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는 은혜를 들고 오시고 왼손에는 은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받아 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오른손에는 은혜를 들고 오시고, 왼손에는 은사를 들고 오셨네."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봉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창고올시다. 강림하신 성령이 항상 이곳에 계셔서 심령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물붓듯이,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받아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저희들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그러나, "인자가, 인자가,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인자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그게 영광이예요.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교회를 위한 첫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 하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나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받아 하세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받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방 주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지만 시간이 걸려서 성령을,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받아 하세요. "한번 주시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노라" 아멘. 은혜는 한 번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으면 절대로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은사는 무엇에 필요한가 하면 '봉사' 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가, 또 어떤 산에 있는 기도원 원장께서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천만에,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은사는 봉사에 유익한 것이지, 은사 못받아서,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봉사에 유익하다, 믿습니까? 받아 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그러면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데 은사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은사는 기도로 받습니다. 은사는 무엇으로 받아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대구의 이웃 가까이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합시다'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 산동성에 가서 선교를 오래 하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래 중국식 발음으로 그 말씀을 합디다. 그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데 격언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식으로 그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무도무능(無禱無能)하고, 소도소능(少禱少能)하고, 다도다능(多禱多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하면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또 다도다능,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많다 그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만 무엇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꼭 뭔지 모르게 영력이 떠나는 것 같고, 은혜가 떠나는 것 같고, 목이 말라서 못살아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좇아갑니다.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다시금 영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여러 차례 기도원을 가는데, 가면 늘 금식기도 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회복해서 일을 하는데 목회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더 받아 합시다. 아예 외우세요. "무도무능 하고, 소도소능 하고, 다도다능 하다." 알아듣겠지요? 기도 안하면 무엇에 없어요? 능력이 없지요. 기도 적게 하면 능력이 어째 됩니까? 능력이 작고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많아요.

받아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받아 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른손에는 은혜를 들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왼손에는 무엇이 있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불이 붙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만 부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참 교리적으로 썼어요. 지금 제가 이 찬송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새 교회의 찬송가가 자꾸 타락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교회의 찬송가가 자꾸 타락이 되고 자꾸만 옆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돼요. 이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송가가 너무 세속적인 그런 곡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주 섭섭한 일이예요. 또 교회의 예배 시간에 가스펠송을 부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예요, 신앙 고백.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성령에 관해 아주 교리적으로 썼어요.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후렴을 보면, 받아 합시다 "주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은혜와 은사를 받는 방법이 다름을 아시고 은혜와 은사를 구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1절을 새로 한번 불러 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분량이 많아 어렵고, 줄여서 그저 뜻만 여러분에게 간단간단히 말씀할테니 뜻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은사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은사는 은혜를 소개하는 일에 그치지, 은사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폐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봉사하고 봉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예언하다가 안된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받는 것이고, 은사는 봉사에 유익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은사를 소홀히 해서 안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이적에서 주님이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극히 적은 것이라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받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열심으로 섬기고 받들면 복을 받아요. 은사 받아서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은사 받아서 봉사하면 복을 받지만 '천국에 저희 것' 은 아니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아홉 가지인데 세 가지씩 세 가지씩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 혹은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 은사 세 가지는 계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

두번째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를" 이 세 가지는 능력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예요. 봉사의 믿음이예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봉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세번째로 또 은사가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이 은사는 영감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 합시다. "영감의 은사, 계시의 은사, 그 다음에는 무슨 은사?"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시는데 열심히 잊어버리시고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영감의 은사,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런데 이 아홉 가지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데 이 아홉 가지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겠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예요. 성경을 찾아 다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시작 –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받아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 제일 좋은 것을 보이리라 그러고 13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은사창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최고로 높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번 받아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살려 가지고 해설적으로 잘 짝을 맞췄어요.

첫째로, 받아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둘이 붙어 있어요. 오래 참아야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 보니까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을 받아 하세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논 사고 밭 사고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예. 그런데 남 잘되면 어때요? 사촌 밭 사면 뭐 아파예? 배가 아프지. 사촌이 밭 사면

>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 하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
>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나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받아 하세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받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방 주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지만 시간이 걸려서 성령을,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배 아픈 사람, 자기가 밭 사면 지는 우야겠노? 자랑하지 뭐. 자기 것 자랑하는 사람은 다 남의 것 배아파 하는 것이 있어요. 남 잘되면 배 아파하는데 사랑은 안 그렇다 이거라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배 아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번째로 다같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해요. 남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 보니까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례히 행합니다.

또 받아 하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왜 내요? 성은 왜 냅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안 됐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성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이예요. 한국 번역은 지금 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놨지만 외국의 성경 번역에는 아주 이 말씀이 짝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사랑인데 이 사랑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또 있어예. 이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열 번째가 되는, 아니 제일 앞장서는 은사가 사랑이라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은사 중에 최고로 높은 은사가 있어예. 뭡니까? 제일 높은 은사, 사도행전 17장을 다같이 찾아보십시다.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 11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다같이 받아 합시다. "베뢰아 사람들은" 베뢰아 사람이라는 것은 베뢰아교회 신자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베뢰아교회 신자들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신자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 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뢰아교회 신자들이 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교회는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고"라고 했어예. 아시아 지역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교회,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데살로니가교회보다 더 존귀하다고 했어예. 그런데 그 존귀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갑니다. 그 사람은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은 성경을 100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놀래 가지고 뒤로 자빠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믿는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외면하고, 또 성경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받아 하세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말씀이 희한한 말씀이네요. 너희를 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말씀을 있잖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야 예수 믿어예. GNP $20,000, $30,000 가면 앞으로 교회는 비어요. 큰일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GNP $20,000, $30,000 원치 않습니다. 그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주리게 하시고, 왜 나그네 되게 하시고, 왜 목마르게 하시고, 아침 먹고 나면 저녁을, 저녁 지나고 이튿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가난한 삶을 살게 하시느냐? 배가 고파야, 어려워야, 고생을 해야 말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흥됐습니까? 그렇지만 GNP가 올라가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돼요. 교회가 줄어드는 게예요.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므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비교를 할 때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안믿어예. 부자가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읽히세요. 1년에 1독 읽히세요. 안 읽으면 회초리로 때리세요. 그렇게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을 하고 자리가 잡히면 틀림없이 그 자식 믿음의 사람이 되고, 틀림없이 공부 잘해서 사회적으로도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다 아시지요? 여자가 하도 정치를 잘하기에 어느 대사가 "폐하, 어찌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정치를 잘하시는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대사 앞에 성경을 가리키면서 영어로 "This is my best counselor.(성경이 나의 위대한 고문관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경이 나의 위대한 고문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고, 성경을 읽다가 판단력이 달라지고, 성경을 읽다가 훌륭한 정치를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운동을 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받아 합시다. "너희를 낮추시고, 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은사,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제단을 얼마나 쌓았다고 했습니까? 네, 일천 제단,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교회에 했더니 우리교회에 천 제단 쌓는 사람이 많아요. 천 제단을 어찌 쌓는지 잘 모르지만 뭐 369번, 560번, 그래 감사의 예물을 드립디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보좌에 앉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아니고 기적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서 앞으로 있어질 일을 미리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점쟁이는 아닙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멀리 미래를 점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는 과거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보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있었잖나? 그러나 네 남편이 아니다." 과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받은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말세에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일어섭니다. 박태선이 모양으로, 문선명이 모양으로, 이호성이 모양으로 샛길로, 딴 길로 가는 다른 영을 받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면 봉사하는 데 유익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화입니다. 제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당회장이었던 분이 저보고 이 교회에 기도의 대장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예배시간에 그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듣는 중에 '아, 좀 잘못 받았구나. 뭔가 좀 잘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에 들었습니다.

금방 잘못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한 일이고 그래서 몇 달쯤 지나고 나서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을 증인으로 앞에 앉혀 놓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일종의 영파(靈

첫째로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 혹은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 은사 세 가지는 계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를" 는 능력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봉사의 믿음이예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봉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세번째로 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이 은사는 영감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데 이 아홉 가지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겠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派)입니다. 그들과 연계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 놓고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 잘못되었거든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내 말이 적중하거든 많이 생각하십시오. 집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지? 남 못하는 기도하셨지?"

"예, 했습니다."

"불을 받았었지?"

"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받은 것이 있어요. 집사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잘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받았어요?"

라며 굉장히 노여워 하면서 내가 받은 것 하고 자기가 받은 것 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르면 감사한데, 성령의 각양 은사 모양으로 그렇게 다르면 모르지만 잘못 받아 가지고 다르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그래 생각하지만 잘못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말해주고 헤어졌어요.

그후에 그분을 고쳐 줘야 안되겠습니까? 심방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심방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이상해, 참 이상해. 목사님과 다니면 자꾸자꾸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 참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속으로 '그거 싹 빠져나가야지. 그거 싹 빠져나가야 되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 빠져나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3년이 걸렸어요. 그분이 많이 울고 회개하고, 잘못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는 것을 봤습니다.

영적인 세계, 교회 안에는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자신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된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을 보통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 기도가 변하여 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말씀을 읽다가 심령에 부딪혀 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다음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은사가 아니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떠서 바다에 옮기리라"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을 얻고자 하거든 양을 먹이고,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봉사 아니겠습니까? 양을 먹이고, 밭을 갈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드리고, 그 음식 다 잡수실 때까지 옆에 서 있다가 음식 다 잡수고 나면 상을 치우는 것, 이것이 다 봉사예요. 양을 먹이고, 밭을 가는 것 다 교회 섬기는 봉사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상을 들어 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씀처럼 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얹어진다 이겁니다.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교회 들어가 보니까 목사, 장로 다 글러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들어간다고,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적을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당신이 적을 올린 만한 훌륭한 교회 있거든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당신 들어가면 훌륭했던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시끄러워서 안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교회는 믿음의 보금자리입니다. 교회에 가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찬양대원도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하시다가 밥상을 들고 주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봉사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봉사하고 하는 중에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섬기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이예요. 그런 은사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기도하다 보면 병 나아요. 그런 거 요새 없다? NO!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 되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손 얹으면 병이 나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 왔어요. 계란 한 꾸러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웬일로 계란을 사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내 무릎에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 나았어요." 관절염,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설교시간에 이상한 불이 와 가지고 나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병이 나아요. 여러분이 병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면 신유의 은사를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설교를 위시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능력 받아서 전하는 사람 있고 능력없이 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믿음의 능력, 병고치는 능력 이런 세 가지 능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아프거든 병원부터 좇아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해 보세요. 아이 위해서 머리에 손을 척 얹고 기도하면 병이 척 나아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신유의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 사랑의 은사가 최고로 높은 은사입니다.
>
>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번 받아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이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많은 은사예요. 성경 이외에 또 새로운 예언이 있나 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론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이 없지요. 없지만 우리 신앙 생활이나 생활에 필요한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방언이 있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예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데 뜨거워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사납게 다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나만 받으세요. 하나만 받아 봉사하세요. "주여, 한 개만 주세요. 나에게는 무엇을 주시면 좋을까?" '사랑', 사랑 받아 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말씀. 받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번 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큰 은혜가, 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한번 더)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힘차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다같이 받아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날에 오셨네. 교회는 성령의 물탱크" 믿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물탱크올시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데 뭐 가지고 납니까? 예, 성령으로 나느니라. 그래서 은혜다 이말입니다. 받아 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무도무능 하고 소도소능 하고 다도다능 하다" 그렇게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만치 말하고 다음에는 은혜입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받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받아 합시다. "은혜롭도다,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저는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성경 구절을 헬라어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은혜롭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낙 복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은혜롭도다 온유한 자는, 은혜롭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은혜롭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은혜롭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은혜롭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무슨 복인고? 받아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땅을 차지할 것임이요, 배가 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될 것임이요, 천당 들어갈 것임이요"

그런데 여기 앞의 천국하고 뒤의 천국이 달라요. 해석을 보면 앞의 천국은 심령 천국, '오는 천국' (Comming of Kingdom)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천국이 바로 '오는 천국' 입니다. 받아 하세요. "오는 천국, 가는 천국" 오는 천국이 있고 가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는 이와 같은 의를 힘입어서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 '오는 천국' 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심령 천국, 가지고 다니는 천국입니다. 받아 하세요. "가지고 다니는 천국" 부동산, 이 심령 천국은 항상 우리 심령에 가지고 다니는 값이 안 변하는 부동산이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다음에 '가는 천국' 이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리라" "심령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을, 심령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을 내게로, 내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성경대로 믿어집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1절만 하십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 가난과 애통은 한 데 붙어 있어요. 심령 가난 곧 애통, 애통 곧 심령 가난이예요. 그걸 어찌 아나 하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 가난이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어보는 중에 '심령이 겸손하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이 없어지는 것' 등등 뭐 별의별 해석을 많이 합디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어요. 이 말씀은 중생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다같이 받아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고 베드로는 뭐라 했는가 받아 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말씀'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씻는 것, 회개. 그러면 '심령 가난'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생의 다른 표현인데 '중생할 때 심령 가난함의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저는 이것이 부인들이 애기 갖는 것, 임신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리 봅니다. 제가 우리교회의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결혼한 다음날 아침에, 어제 결혼했으면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저 용기 많다. 신랑을 우에 떼어 놓고 첫날 밤에 저래 밖으로 나왔는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 신부가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만 새벽 기도 나와 가지고 나자빠져 버렸는 기라. 엎어 졌어요. 제가 경상도 말을 많이 써 가지고 여러분 잘못 알아들지 싶은데 영 모르겠거든 내게 오시면 가르쳐 드려요. 아무튼 이 신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사택에다가 눕혀 놓고 마침 교회 이웃에 사는 친정 어머니를 불렀는 기라. 나는 방에 들어가 기도 한 번 해주고 바깥에 나와 툇마루에 앉아서 상황이 우에 되는고 싶어 기다리는데 그 새댁 어머니가 들어가서 "야가 와 이래 쌌노. 와 이래 쌓노? 아가 정신 차리그라" 한참 그러더니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병입니꺼?" 무슨 병이냐고 물었더니 아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병? 처녀 때 어디 아팠습니까?" 처녀때 아팠느냐고 물으니 얼마나 성을 내는지 "아이고 저래 머리가 나빠 가지고 우에 목사하노?" 하는 기라. "아이고 내가 본래 머리가 나쁘지요. 나쁘긴 나쁘지만 세상에 그것까지 우에 알겠노? 내 머리는 나쁜데 그래 무슨 병이란 말입니꺼?" "아 가졌단 말입니다. 아요." 임신했다 이거예요, 임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집 사람한테 물었네요. "그래 임신하면 그냥 곱게 하지 왜 나자빠지기는 나자빠지노? 거 왜 나자빠지노?" 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새댁이는 애기를 별나게 가지네. 어떤 사람은 그래 넘어져예. 당신은 남자가 돼 가지고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기미도 끼고, 그 다음에는 우엑 우엑 구토증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참 여자들 애기 갖는 것 보통 여사일이 아니구먼." 그래 했어요.

같이 받아 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애기는 아버지의 씨 아닙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기 때문에 김씨 성을 가졌으면 김 누구, 이씨 성을 가졌으면 이 누구 하지 절대로 부인 성으로 안하거든요. 부인 이름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없지요. 눈닦고 봐도 없드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장씨예요. 제가 우스개 소리로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전부 다 내 이름으로 하면 되나? 너무 미안쿠만. 장씨 하나 하지 그래." 하니까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런 법이 없답니다. 그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넷을 다 김씨로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김씨가 아니고" 다 썩어지지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부부와 관계없이 오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부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받아 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심령에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때요? 은사를 받으면 기쁨이 오나, 은혜를 받으면 '어쩌지?' '이 일을 우째 하지?' 걱정이 먼저 와요. 예수 믿는 일에 새 생명이 오면은 걱정이 먼저 오는 것이예요.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같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하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심령 가난이어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은 "의롭고 거룩한", 하늘에서 왔으니 죄가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한다' 는 그 말씀의 설명을 아주 미묘하게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의롭고 거룩한 새 생명이 우리 심령에 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강포와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 이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 이루어진 우리 심령 속에, 썩어질 심령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새 생명이 딱 들어오면 "어쩌지? 아, 어쩌지?"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 그게 한 달도 가고 어떤 사람은 1년씩도 갑니다. 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심령 가난의 은혜가 옵니다.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걱정이예요. 구원에 이르는 걱정이예요. 회개하는 걱정이예요. 거룩되어지는 걱정이예요.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그렇게 해본 사람은 복 되도다! 그런 은혜를 가져 본 사람은 복 되도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사가 임하면 기쁨이 먼저 오지만,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먼저 온다 이겁니다. 얼마나 근

다같이 받아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그 사람은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은 성경을 100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놀래 가지고 뒤로 자빠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외면하고, 또 성경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낮공부 ◑

심하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 그렇게 하다가 어느 결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터져요. 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눈물이예요. 내가 만든 눈물이 아니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사 그들이 찌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우는 때에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도 안한 사람이 집사 하고 권사 하고 장로 하고 이라면 우야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울음이 터져요. 울게 되요. 중생의 순간입니다. 새 생명의 순간입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머니요, 우리 4형제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세상에 나오면서 웃는 것 봤습니까?" 그랬더니 "웃기고 앉아 있다." 그래요. "아이 권사가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웃기는. 다 엎어져 가지고 울고 나오더라." "와 울지요?" "와 우는지 그거 다 알면 내 너하고 사나?" "그럼 우리하고 안 살고 어떻게 어디 가서 살아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만 뱃속에 있는 애기가 이 세상에 나오면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살지? 그래 울지 싶다." "아니 지가 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야야, 아들도 영물이데이 영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으로 먹었지만 세상에 나오면 코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입으로 먹잖아요. 가슴 양쪽에 폐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때 영혼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봤으니 모르겠고, 좌우간 양쪽에 폐가 있는데 입과 코를 통해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응애응애' 우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애는 한 번만 '응애' 울고는 안울어요. 그것은 죽었는 거예요. 왜 죽었나 하면 세포 분열에 잘못 돼가지고 폐에 구멍에 뚫어진 애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응애응애' 울다가는 나중에 빙긋이 웃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 비슷합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열달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다 같이 합시다. "새 생명이 들어와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 말씀이 탁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짜꼬?' '어쩌지?'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응애' 하고 터져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일생에 꼭 한 번은 울어야 되는 눈물이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있고 두들겨 맞아서 우는 것도 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는데 이 눈물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울면 울수록 가슴이 시원하고, 울면 울수록 자꾸 웃음이 나오고, 울다가 '아이고 참 내 이상타.' 그러면 그것이 복있는 울음이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상극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해본 사람은 복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울어 봐야 돼요. 그게 심령 가난, 애통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일년씩 반년씩 오래도록 걱정한 사람은 복이 많도다!" 복이 많습니다. 그것 없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예수 믿는 것이 기쁘기만 하면 안돼요. 한 번은 새 생명을 얻어 가지고 이 선을 넘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를 부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힘차게 한번 더 부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재로 받아 합시다. "은혜롭도다, 은혜롭도다, 새 생명 받아서 근심해 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넉넉한 구원 얻겠습니까?" 아멘! 아멘! 중생했느냐, 안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 세 가지를 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소개하고 설명을 합니다.

> 따라서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심령 가난의 은혜가 옵니다.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걱정이예요. 구원에 이르는 걱정이예요. 회개하는 걱정이예요. 거룩되어지는 걱정이예요.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그렇게 해본 사람은 복 되도다! 그런 은혜를 가져 본 사람은 복 되도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
> 이렇게 은사는 임하면 기쁨이 먼저 오지만, 은혜는 임하면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먼저 온다 이겁니다.

첫째 특징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의 첫째 특징은, 받아 하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연거푸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받아 하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만 어린 신자라도 그렇습니까? 어린 성도라도 그 마음은, 그 생각은, 그 뜻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받아 하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번째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받아 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곳으로 죄를 옮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와요. 4대 은총이, 확실히 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번째는 주의 일이 하고 싶습니다.

받아 하세요. "주의 일 하고 싶습니다"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어쨌건 주의 일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무슨 일 하나요? 양 먹이는 일 해요. 직접 양을 먹이든지, 옆에 서서 양 먹이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봉사하든지 양 먹이는 일에 충성 봉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충성하다가 순교도 합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 합니다.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네번째로 죄 지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말했어요. 받아 하세요. "첫째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두번째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리고 세번째로는 "주의 일, 주의 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습니까? 선교하고 싶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번째로 "큰 죄 못 지어도, 적은 죄를 지어도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 보면 아프다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아봉"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프면 "아야, 아야" 이러는데 히브리 사람은 '아봉'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는 거듭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은혜롭도다 새 생명 얻어서 근심해 본 사람은" "우야꼬?" "어쩌지?" 해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한번 울다가 웃다가 그런 경험을 해본 성도는 천국에 저희 것임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오늘 새친구 초청잔치를 연다. 94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 및 부모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유아부는 5월 5일에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 유치부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민아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민아 어린이의 완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초등1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5월 19일 가족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초등2부에서는 어린이전도대원을 모집한다.

▶ 초등4부는 오늘 분반공부 시간에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1일에 과별로 예선을 실시했다.

▶ 초등5부는 오늘 분반공부시간에 성경이야기대회를 개최한다.

▶ 초등6부는 5월 26일에 전도집회인 안드레초청잔치를 개최하는데, 이를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 중등2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전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언북, 진선, 역삼, 신사 등 집중적으로 전도할 4개교를 선정하고 기타 학교에서도 전도를 해나가고 있다.

▶ 고등부는 소그룹 활동을 통한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 소그룹 연합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소그룹 소속 학생들은 낮 12시 15분부터 아멘홀에서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 청년1부는 5월 3일(금) 저녁 10시에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전체기도회를 갖는다.

▶ 청년2부는 5월 19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장년3부는 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탁아부는 5월 5일 모범 어린이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 새가족부는 오는 5월 12일 십계명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제5기 수강생 모집

신성한 결혼과 건전한 가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령기의 젊은 남녀와 결혼 준비중에 있는 예비 신랑 · 신부를 모집합니다.

- 수강대상자 : 결혼을 준비중인 적령기의 남녀 성도
- 교육기간 : 5월 5일(주일)부터 2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성경적인 결혼, 신앙적인 가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양

농아교회 교역자 기도회

5월 2일(목) 오후 2시-5시
충현복지관에서

한국농아선교회에서는 5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현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에서 한국 농아 선교 회년을 기념하며 전국 농아교회 교역자 기도회로 모인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아교회의 목회자 100여명이 함께 모여 기도회와 서로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충현복지관

조기교육실 아동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 조기교육실에서는 5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2박 3일간 사회성 향상 및 자립 기술 능력 발달을 위해 조기교실캠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동들에게는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캠프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캠프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캠프에 관한 자세한 문의나 자원봉사 신청은 충현복지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 564-4885, 562-0548

충현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해군부대 방문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충현복지관에서는 제1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 큰 행사를 진행하였다.

4월 19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직업훈련생 38명과 지도교사 8명이 해군 OOOO부대를 방문하여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군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생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군 OOOO부대에 도착하여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월미산에 올라가 인천 상륙 작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에는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군견훈련 시범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군 홍보영화를 통해 해군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한국형 신형 초계함인 속초함에 승선하여 함정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군부대 방문으로 직업훈련생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들과는 또 다른 군인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장애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그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편 장애인의 날에는 직업훈련생 35명과 지도교사 25명이 잠실학생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였고, 신한은행에서 주최한 황소걸음문학제에도 참가하여 직업훈련생 3명이 가작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행해진 이런 행사들은 직업훈련생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고 생활의 자신감을 얻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목캔디 2개에 얽힌 이야기

이 상 재
(집사, 장년1부 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 탓인지 등골이 오싹오싹 추웠다 더웠다 하며 식은 땀이 나고 콧물이 나며 기침이 밤낮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났다. 토요일 밤에는 한 잠도 자지 못하고 누웠다 앉았다 반복하기를 새벽 3시까지 한 잠도 못 자고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다.

장년1부 교사 집회 시간인 10시 20분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서둘러 갔다. 교육관 4층까지 단숨에 뛰어 오르던 계단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몇 주일 전에 우리 장로님이 안보이시기에 물었더니 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석을 하면 안된다 하시던 분이 그까짓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독한 감기가 나에게 올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다행히도 교사 집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한 번도 기침이 나지 않아서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 기침도 나게 하시는구나 마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교사 모임을 마치고 3부 예배에 참석했다.

본당 맨 뒤에서 네번째 줄에 앉았다. 혹시나 기침이 나서 예배를 방해하지나 않을까 생각해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목사님께서 처음 오신 분, 새로 등록하신 분, 헌금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야 참 아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치도 못할 것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에 계획도 없이 불쑥 콜록콜록, 몸에서는 식은 땀이 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기침이 나기에 손수건을 입에 대고 방음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6 · 25 전쟁 때도 가끔 총성이 멈추었다가 들리곤 했는데, 집에서 목캔디라도 두어개 갖고 왔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이 기침을 멈추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목캔디라도 두어개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콕콕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다. 앞에서는 안내하는 분이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할 수 없다. 오늘 설교는 듣지 말라시는가보다."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콕콕 찌르던 손이 내 눈 앞으로 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손인지 사람 손인지, 그 손에 내가 방금 기도한 대로 목캔디 두 개가 놓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기도를 들으시다니 뒤를 돌아다 보니 아마도 권사님 같아 보였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입에 넣으세요. 기침이 멈출 것입니다."

목캔디 덕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나를 감격케 한 그 권사님께 명함을 드리면서 "전화 한 번 주세요." 인사를 드리고 장년1부로 올라갔다. 언제 만나면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리라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목캔디 때문에 기쁘게 주일을 보냈다.